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
	배포일시	2019. 12. 25.(수) 총 3매(본문 2)	
담당 부서	혁신도시발전 추진단 혁신도시계획과	담당자	• 과장 박정호, 사무관 이남성 • ☎ (044) 201-4463, 4464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

-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이전 완료

-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충북혁신도시) 마지막 이전

-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, 혁신도시 시즌 2 본격사업 활성화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올해 연말 완료한다고 밝혔다.

* '14년까지 94개, '15년 36개, '16년 9개, '17년 8개, '18년 3년, '19년 3개 기관 이전

○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'03년 기본구상 발표, '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, '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하였으며,

○ '12.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12월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.

* 혁신도시(112개, 4만 2천명), 세종시(19개, 4천명), 개별이전(22개, 6천명), 총 약 5.2만 명

○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'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.

- 주현중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“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를 계기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” 이라고 밝히고,
- “이를 위해 지난해 「혁신도시 시즌2」를 발표한 바 있으며, 혁신도시별 발전전략, 정주여건 개선,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” 이며,
- “앞으로도 「혁신도시 시즌2」의 주요정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,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,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,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,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 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계획과 이남성 사무관(☎ 044-201-44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도

□ 153개 공공기관 배치 : 혁신도시 112개, 세종시 19개, 개별이전 22개



참고 2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충북 음성군) 신사옥 사진

